

신자유주의와 자본 디아스포라의 역사

신 항 식
(홍익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보여주었던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본연적인 고향/타향의 현실적인 인식으로부터 돈의 순환 혹은 자본의 유동성 논리로 변해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추적한다. 고향의 관념은 인간에 있어 본유적인 의식이지만, 인간의 경제논리는 고향의 관념을 잊게 하며 그 근대적인 모습을 유대인을 통해 명료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19세기 이래로 유대인은 자본과 기술이 발전한 지역을 자신의 실제 고향으로 인식했으며, 20세기 이스라엘 탄생의 의미는 단지 상징에 불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인구적 디아스포라는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 정체성의 문제를 고향 혹은 지역으로 해결보는 것이 아니라 인종 혹은 종교로 해결을 보려하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통해 인종주의, 혹은 종교주의적 민족주의가 얼마나 왜곡 될 수 있는가를 논증한다.

오늘날 자본의 디아스포라로 변질된 유대인의 역사는 결국 전 세계적 공동체의 경제생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위기의 본질은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유대인의 비정체적 논리에 따라 전 세계의 인민들이 상호공존의 감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란 사실을 설명한다.

주제어

디아스포라, 신자유주의, 세계성,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들어가며

미국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선과 악의 뒤에서 이들을 움직이는 비밀스런 권력자가 등장한다. 이 권력자는 걸맞지 않게 옛 중세 수도사 같이 검은 망토를 쓰고 있거나, 머리 좋은 미치광이 과학자다. 이들의 목적은 세계 혹은 우주의 정복이다.

정복의 대상이 지구일 경우, 권력자는 지구 바깥에서 온 인물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지구인이 아닌 초능력자 혹은 미치광이 이다. 정복의 대상이 우주일 경우, 권력자의 반대자 즉, 주인공은 지구 혹은 지구와 같은 형태를 지닌 별이다. 권력자는 고향이 없다. 그러나 주인공은 고향이 있다. 이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은 원주민이기 때문에 원주민은 선한 자들이다. 그러나 디아스포라는 악인이다.

이 두 가지의 상상력. 세계정복과 고향이 없는 권력자의 상상력은 어디서 유래 한 것일까? 이 상상력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유대인과 같은 자본의 디아스포라가 미국의 공상과학 영화의 상상력을 구상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독교인은 영화의 주인공이고 유대인은 권력자가 아닐까?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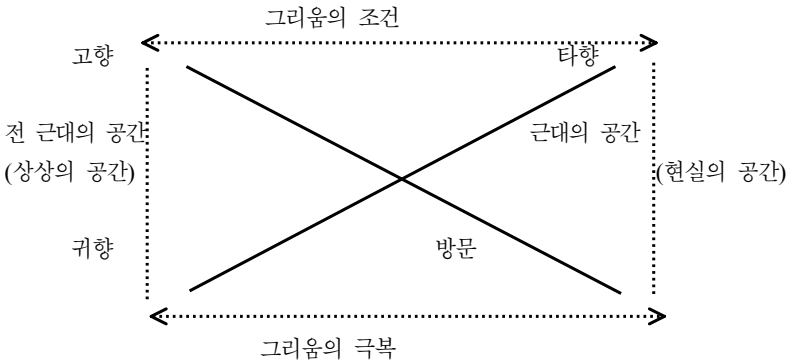
인간에게 떠나움과 정착함의 관습은 이미 체질화 된 것이다. 특히 정착함의 관습이 그렇다. 떠나움은 타의의 가능성이 더 크지만 정착함의 관습은 자의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태생과 근원으로부터 떠나 태생과 근원으로 되돌아가려는 감정이 그리움이며 그리움의 행동이 귀향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오랫동안, 귀향에 대한 보편적인 의식은 내성적 혹은 종교적인 마음의 문제였다¹⁾.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Diaspora)는 가장 대표

1) 서구 사상사에서는 귀향의 문제는 호머의 오디세이와 일리아드, 그리고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에 있어서도 인간의 현존을 고향상실로,

적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2000년 이상의 타향살이를 통해 고향을 잊지 않은 유대인들의 고향회귀 작전의 전모이다. 그러나 근대산업시대에 들어와 타향살이는 전 세계 국가의 정치 경제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렛대가 되어 버렸다.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여기서 내성적 혹은 종교적인 마음의 문제를 벗어난다.

인간이 내성적으로 지닌 고향과 타향의 감수성 즉 그리움의 문제가 근대 산업사회에 이르러 일종의 강제가 되어 버렸다. 타향살이는 근대사회의 현실이 되었다. 반면, 고향은 대다수 근대인에게 상상의 공간으로 남아버린 것이다. 근대화 이후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상상과 타향의 현실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그리움의 조건이 되며 이 조건을 극복하고자 사람들은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들과 같이 휴가 때 고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앞선 빅스와 같이 귀향을 택하는 것이다.



[그림 1] 근대 그리움의 조건과 극복

인간의 구원을 고향회귀로 표현해왔다.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의 귀향이란 것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원리를 지닌다. 즉 타향적 촉매의 원리(현상계의 미가 귀향심 발휘의 계기를 제공함), 회상의 원리(이데아계에서의 경험에 대한 회상), 에로스의 원리(본향으로서의 이데아계를 그리워하고 온 영혼이 그것을 지향함), 자유의 원리(귀향은 영혼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함). 신적 광기의 원리(귀향의 성취는 신들의 도움으로 가능함).....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위는 고향에 안주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을 그 근저에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현존은 시적이면서 또 철학적이다. 왜냐하면 철학이란 결국 향수이며, 귀향이기 때문이다.” 전광식, 『고향』, 파주: 문학과지성사, 1999, pp.144-145.

이 글은 이러한 원론적인 그리움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내성적인 문제였던 디아스포라가 실은 타성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양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하려 한다. 디아스포라는 단지 고향-타향-귀향-방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성의 변화과정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학문적으로 변질되어 왔으며 이를 유태인의 디아스포라가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의 현재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이념과 접목한다는 점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즉, 디아스포라의 보편화가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본 모습이다. 현대인은 신자유주의의 정치, 경제체제를 인정하는 이상, 개인과 만민과의 투쟁을 벌이는 영원한 타향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다.

2. 19세기 유태인 디아스포라의 유럽사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유럽 각국의 정부는 반동적으로 구체제의 제도를 복구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 버린 상태였다. 프랑스 혁명의 놀라운 경험과 자유주의 사상은 이미 유럽 각 민족에게 스며들었으며 구체제의 용기로 이 변화를 견디어 내기에 복고정부는 이미 스스로 구식체제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당시 폴란드 및 동유럽에서 주로 살던 유럽의 300만 유태인은 오랫동안 종교의식 및 직업선택, 이주 및 사회 참여에 제약을 받았다. 이런 반유태주의에 기반한 구체제의 정치, 경제제도를 복구하고자 했던 19세기 초반 유럽정부의 시도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프랑스 혁명 이전, 신대륙 미국은 이미 유태인에게 직업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1791년 11월 프랑스 제헌의회는 5000명의 유태인을 능동적 시민으로 판단, 모든 예외적 법률로부터 해방²⁾시켰다.

2) 자코뱅파 의원 Duport이 발의한 법률을 제헌의회가 만장일치로 합의, 1791년 11월 13일 루이 16세가 인준, 고시했다. “프랑스 영토 내에 사는 터키 및 모슬림인들은 모든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유태인 또한 능동적 시민의 권리를 프랑스인과 똑 같이 누릴 수 있다.”

제헌의회 공시 이후, 프랑스의 유대인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락 받았다. 프랑스 영토 각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이들은 스트라스부르그나 물우즈(Mulhouse)와 같은 중공업 도시로 이주했다. 마르세이유, 님(Nimes), 나르본과 몽펠리에, 리옹, 디종, 툴루즈로 이주하는 유대인도 늘어났으며 1789년 500여명 남짓했던 파리의 유대인은 1808년 3000명으로 늘었다.

상업의 자유와 의회참여만을 제약받았던 영국의 유대인들을 포함, 유럽 각지 수백만명의 유대인들은 프랑스의 자유를 반기고 부러워했다. 유대인의 자유는 유럽대륙의 비밀스런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종교자유의 원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프랑스 혁명의 새로운 제도로 뿌리 박혔으며³⁾ 직업 및 이주의 자유는 이미 유럽의 유대인들을 동요시키고 있었다. 1796년 네덜란드는 5만 명의 유대인을 법적으로 해방시켰다. 나폴레옹의 원정 및 집권에 의해 고무 받은 베니스와 로마의 이탈리아 그리고 라인강 서부의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같은 자유는 아니지만 구체제에서는 맞볼 수 없었던 법적 시민의 권리를 약속받았다. 폴랜드를 포함한 프러시아의 20만 유대인은 나폴레옹의 러시아 패퇴 이후, 1812년에 가서 비로소 법적 권리를 부여받았다.⁴⁾

장남을 제외한 유대인의 결혼을 금지했고 주류 및 고기소비의 특수세를 물렸으며, 수도인 비엔나 방문세까지 징수했던 오스트리아의 경우, 1789년 이후 1815년 독일연방(German Confederation)의 반동적 법체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에서 점진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러시아의 예외적인 상황은 지적할 만하다. 러시아는 서부유럽의 자유주의의 흐름에 반하여 18-19세기 내내 구체제적 전통을 고수했다. 1804년부터 유대인들에게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농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했다. 유대어를 포기하는 이상, 공립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당시 실제 경제 사회상황은 유대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

3) 1795년 8월 혁명년 3년 프랑스 헌법 원문. “종교의 선택은 개인적이며 그의 종교 행위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4) 1812년 Frederick William III 의 칙령, “프러시아 국가내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누린다.” 그러나 프러시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공무원이 될 수는 없었다.

다. 러시아에는 다른 유럽지역보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무려 300만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대한 정부의 경계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니콜라이 I세(1825-1855)치하에서만 600개 이상의 유대인 권리제한규칙이 제정되었다.⁵⁾ 그만큼 유대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뜻한다. 1882년 5월 규칙은 유대인에게 정해진 도시 바깥을 나가지 말 것, 부동산 거래 금지, 기독교 주일 상행위 금지를 규정했다. 게다가 정부는 이들에게 주기적인 폭력(유대인 학대 혹은 포그롬: pogroms)까지 행사했다. 러시아의 유대인이 정치의 수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전후이다.⁶⁾

이와 같이 19세기 유럽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이름을 버리고 공학교에 입학하며, 공동체와 의식을 파괴하며, 유대어를 금지하며 징병의무를 수행하는 조건을 통해 유럽시민화 되어 갔다. 옷차림이나 언어, 직업에 따른 구체제식 유대인의 모습은 점차적으로 사라져 갔다. 즉, 고향의 재현적 현실이었던 계도를 떠나 토착지역으로 흡수되어 갔던 것이다.

인구 증가율과 거주 지역을 본다면, 1800년 이후, 250만의 유대인은 1900년에 이르기 까지 1050만 명으로 인구수가 늘어난다.⁷⁾ 19세기 중반, 가시적으로 드러난 8만의 프랑스 유대인들 중 3만 명이 파리에 살았으며, 나머지도 대다수 중공업 및 상업 대도시에 살았다. 영국의 경우, 알려진 5만 3천명의 유대인 중 반 이상이 런던에 나머지 반은 글래스고우, 맨체스터, 리버풀과 같은 중공업 및 상업도시에 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세기 서구의 공업혁명과 자본주의 경제발전이 있던 이 기간에 유럽의 유대인들이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였다는 점이다. 근대화 된 유대인들에게 서구는 더 이상 디아스포라의 영역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 고향이었다. 서구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최소한 사회, 경제

5) 1649년 알렉세이 I세가 농노제를 기초한 「신법전」을 출간한 이후 1881년 7월 알렉세이 II세가 암살당하고 남러시아 170개 도시에서 유대인 학대가 벌어질 때까지 러시아의 유대인 권리제한법은 1200여 가지가 넘었다.

6) 1917년 2월 성 페테르스부르크의 시민평등 선언과 함께 러시아 유대인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7) 100 년간 영국인구 증가율의 두배, 프랑스의 15배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1816년 300,000명이었던 유대인이 400,000명으로 늘어난다.

적인 삶에 있어서 강제된 것이 더 이상 아니었다. 즉, 구체제가 붕괴하고 자유주의 사상이 대세를 이루던 18세기 이후 유대인은 ‘현실적인 디아스포라’였다. 유대인들은 능동적인 디아스포라였던 것이다.

이들은 19세기 후반 전 유럽과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해 왔다. 정치적인 면을 본다면, 1848년 프랑스 혁명 정부는 두 명의 유대인 장관을 가졌으며⁸⁾, 1852년 빅토리오 엠마누엘리 II의 치하에서 유대인 다제글리오(Massimo D'Azeglio)가 총리로 탄생했다. 지속적으로 유대인의 권리를 제한⁹⁾해 왔던 영국은 1871년 총리이자 보수당의 총재, 유대인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를 탄생시켰다. 1870년 모든 권리를 부여받은 독일의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로 깊숙하게 흡수되었으며 1875년 독일 애국주의의 부활과 더불어 반유대주의의 부활마저 경험한다. 전쟁자금의 문제로 시달리던 오스트리아는 결국 1866-67년 유대인에게 모든 권리를 허락하게 된다.

1862년부터 1880년까지 서구 유대인의 영향력은 모로코, 그리스, 이란과 터키, 팔레스타인, 튀니지, 시리아, 레바논과 같은 지역에도 미쳐, 종교와 교육 그리고 상업의 권리를 획득하고 있다. 유럽 혹은 서구시민으로서의 유대인의 지위는 유대인이 유럽정부와 싸워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유럽 각국이 시행해 왔던 구체제의 차별이 점차 사라져 가면서 얻은 유럽정치 외교 및 사회사의 결과이기도 하다.

유럽의 유대인 정치가들은 모두 반유대주의의 구체제를 뒤엎은 프랑스 혁명과 유럽의 자유주의 개혁을 지지했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멀리하고 진보적인 이념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다. 그러나 일단 정치계에 입문하여 집권하면 시대의 보수주의로 회귀했던 것이다. 이것이 19세기 유대인의 모습이다¹⁰⁾. 이런 이유로 마르크스라는 가장 진보적인 19세기 사회이론가를 탄생시

8) 법무부장관 Adolphe Cremeux와 재정부 장관 Michel Goudchaux가 그들이다.

9) 영국의 경우, 유대인은 영국령에 살던 가톨릭인들이 권리를 제한받았던 동일한 상황에 있었다. 정치참여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커다란 차별을 느끼고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10) 도스토예프스키의 19세기 유대인의 인간성과 경제논리에 대한 비판은 그의 작가일지(A Writer's Works)에 나와 있다. D. Goldstein, *Dostoyevski and the Jews*.

켰으며, 가장 개혁이 늦었던 러시아 혁명에 레닌과 트로츠키와 같은 억압받던 러시아의 하층 유대인 대다수가 뛰어 들었던 배경이 되는 것이다.¹¹⁾ 이들 이후의 공산주의 보수화 진행과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인 면을 본다면,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로스차일드(Mayer Amschel Rothschild) 이래로 이 집안은 영국 맨체스터의 면방직 공업과 런던의 금융계를 장악했다. 비엔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나폴리에 투자된 로스차일드의 자본은 19세기 동안 가장 컸으며 유동적이었으며 세계적인 것이었다. 영국의 골드슈미트(Goldschmidt)나 프랑스의 폴드(Fould), 독일의 스텐(Stern), 켈리그만(Seligman), 오펜하임(Offenheim) 집안 또한 그 지역의 경제권의 핵심적인 자본가로 커 왔다. 그러나 이런 대자본가들은 빙산의 일각이며, 유대인의 중소 자본가들 또한 대 자본가가 되기 위해 19세기 공업 혁명을 충분히 이용해 왔다.¹²⁾ 정치적 권리 획득과 경제적 자본의 축적이라는 두 가지 동기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

1880년 이후 1914년 까지 벌어진 유럽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의 폭발적인 경향은 결국 유대인의 권리보호에 가장 후진적이었던 러시아와 동유럽의 유대인들을 미국으로 이주하게 만들었다. 1881년부터 1914년까지 300만의 동유럽 유대인이 영국이나 타 서유럽,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지로 이주했으며 120만 명의 인구가 미국에 정착했다. 다시 한 번의 디아스포라가 20세기에 벌어진 것이다.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마르크스의 유대주의적 인간성과 국제금융자본과의 결탁문제는 M. Bakunin, *On Anarchism*, S. Dolgoff(eds), Montreal: Black Rose Books, 1980을 보라.

- 11) 혁명과 함께 성립된 소련정부의 1918년 유대인계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인원 / 유대인 / 유대계 비율: J. Cameron, *The Dearborn Independent*, September 25, 1920. Chicago)
인민위원회의 22 / 17 / 77.2%- 전쟁 정치위원회 43 / 33 / 76.7%- 외교 정치위원회 16 / 13 / 81.2%- 재무 정치위원회 30 / 24 / 80.0%- 법무 정치위원회 21 / 20 / 95.2%- 선전홍보 정치위원회 53 / 42 / 79.2%- 사회조력 정치위원회 6 / 6 / 100.0%- 노동 정치위원회 8 / 7 / 87.5% - 해외 볼셰비키 대표부 8 / 8 / 100.0%- 지방 정치위원회 23 / 21 / 91.3%- 언론위원회 41 / 41 / 100.0%
- 12) Rockefeller, Dupont, Royal Dutch, GE, GM, ATT, IBM, Boeing, US Steel, Xerox 등도 19세기 이래 부를 일군 유대인 자본가들의 기업이다.

미국은 이미 독립전쟁 이후 유대인의 권리보호를 각 주에 맡겼으며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대인의 이민을 허용했다. 1860년 31백만의 미국인구가 1900년 76백만으로 늘었다. 인구 중에 유대인은 125만 명으로 뉴욕과 필라델피아와 같은 대 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유럽의 유대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20세기 미국을 움직이는 큰 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3. 문화적 시오니즘 혹은 전통적 디아스포라 vs 현실적 디아스포라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디아스포라가 어째서 이스라엘이라는 성지탈환의 전통적 혹은 시오니즘의 꿈과 같은 목적을 성립시킬 수 있었는가? 성지탈환은 유대인들이 지녀 온 2000년의 꿈이었다. 돈과 권력을 지닌 현실적인 디아스포라에 의해 꿈이 거부될 리 만무한 것이다. 독일에 정착하여 경제적 부를 일군 19세기 중반의 개신교도 유대인을 제외한다면 대다수 19세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꿈꿨다. 이는 당연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제국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서구 유대인들이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디즈레일리, 로드 바이런(Lord Byron), 엘리엇(George Eliot), 샤프트베리 경(Lord Shaftesbury), 로스차일드(Edmond de Rothschild), 스위스 적십자의 듀낭(Jean Henri Dunant), 독일의 칼리셔(Zevi Hirsh Kalisher)와 헤스(Moise Hess), 러시아의 스몰렌스킨(Perez Smolenskin), 릴리엔블룸(Moise Leib Lilienblum)등이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움직였다. 결국 1948년 5월 이스라엘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는 겉모습일 뿐이다. 유대 민족주의 혹은 시오니즘은 19세기에 이루어진 정치, 경제적 성공에 따른 귀향의 현실화 가능성에 그 뿌리가 있는 것이지 2000년 동안 꿈의 역사만을 홀로 지고 온 것은 아니었다. 거꾸로 다시 말하면, 2000년의 유대인에게는 디아스포라의 현실이 더욱 현실적이었을 뿐, 시오니즘의 이스라엘은 상상속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시오니즘을 현실로 이

해한 사람들은 옛 동구 유럽이나 러시아의 중하류 계층 유대인들이 대다수였다. 상류 유대인들이 구태어 이스라엘을 원할 리 만무한 것이다. 현실적인 디아스포라에서 잘 먹고 잘 살며 거대 시장이 자리한 유럽과 미국에서 살아야지 무슨 목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겠는가. 아사 험으로 더 잘 알려진 19세기 후반의 긴즈버그(Asher Hirsch Ginsberg; Ahad Ha'am)는 시오니즘의 한 복판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¹³⁾을 한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다이즘의 정신적인 센터를 짓고 마는 것이 옳다…… 유대인들이 직접 가서 키부츠를 짓고 사는 일은 메시아의 이상일 뿐이다…… 유대인들은 각기 타향에서 현실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이 좋다”

오늘날 미국에 사는 이들이든 유럽이든 어느 곳이든, 유대인이라 존재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인종으로나 민족정체성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명료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종교적으로는 어떤가? 그러나 이 또한 정치를 빼고 시오니즘이나 유대교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유대인을 정의하는 모든 개념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현실(혹은 반시오니즘) 속에 넓고도 깊게 섞여 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 정치, 경제적 삶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유대인을 규정짓는 이념이란 없는 것이다.

유대인 수석 랍비들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유대교의 관계를 지적한 바 있다. 유명한 랍비 와이즈(Stephen Wise)의 말, “Some call it Marxism – I call it Judaism”¹⁴⁾ 과 같이 유대교와 정치체제 혹은 정치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는 이미 일반상식을 넘어섰다. 문화적 시오니즘 혹은 종교적 시오니즘은 결국 온갖 정치 이데올로기와 만나지만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의 현실적 디아스포라 혹은 개인주의적인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의

13) Ahad Ha'am, *The Jewish State and Jewish Problem*, trans. from the Hebrew by Leon Simon c 1912,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Essential Texts of Zionism/*Encyclopedia of Zionism and Israel*, vol. 1, Ahad Ha'am, New York, 1971, pp. 13-14.

14) Stephen S. Wise, *Jewish Chronicle*, London, November 24, 1926.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미래이다. 만약 하나의 진정한 사회학의 경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다. 오직 유대인만이 이런 책을 쓸 수 있다... 유대인은 지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뛰어난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유대인에게는 전 인류를 복속시키고 이 세계의 주인이 될 권리가 있다. 유대인은 전 세계의 군주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을 그들의 통치하에 둘 것이다. 물질적인 영향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빛과 지식, 이해, 인류애, 평화, 정의, 그리고 진보를 통해서... 아리안 인종은 오직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세상을 개선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 틀이란 바로 공산주의와 인터내셔널리즘이다... 국가자본주의는 러시아에서처럼 혁명을 통해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고 미국에서 그러할 것인듯 위로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다... 유대인은 이 세상을 상속받을 것이며 그 외의 모든 민족과 인종은 아예 지상에서 사라지거나 유대인이 될 것이다.”¹⁵⁾

“We have exterminated the property owners in Russia. We are going to do the same thing in Europe and America.”¹⁶⁾

마르크시즘과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안티테제라고 알아온 상식적인 세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왔다. 사회의 상층부로부터 아래로 작용하는 자본주의와 민중혁명을 무기로 사회의 하층부로부터 위로 작용하는 공산주의의 목표와 종착점이 합치한다는 것이다.¹⁷⁾

15) Rabbi Harry Waton, *A Program for the Jews and Humanity*, New York: Committee for the Presentation of the Jews, 1939, pp. 143-144

16) Zinobit, in *The Jew*, December 1925, London,

17) “It is legitimate to adopt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relatively large number of Jews who particularly in the first decade after the Bolshevik revolution collaborated with the Soviet Government in the persecution of other peoples.” in *Forward*, March 10, 2000. Australia, 유대인과 공산주의의 밀월 혹은 인척관계는 프랑스어로 출간된 Stéphane Courtois(col), *Le livre noir du communisme*, Paris: Robert Laffont, 1997이 있다. 이 책은 1999년 영어로 번역 출간되었는데 반유대 논쟁의 씨가 되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와 시오니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는 없다. 단, 공산주의와 자본주의(혹은 나치즘)를 동일한 목표를 가진 두 얼굴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의 관점. 이 특이성이 실은 진정한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드러내는 디아스포라의 상징적 현상이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주의의 세계성과 자본주의의 세계성은 동일한 성격을 지녔다¹⁸⁾. 권력과 자본을 중심으로 무한대로 세계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19세기 긴즈버그가 주장했던 ‘문화적 상징으로서 시오니즘과 현실적 디아스포라’의 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즉, 2000년 동안의 고향은 상상의 것일 뿐 실제 고향은 단지 디아스포라인 것이다. 그 장소는 세계다.

2005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에 따르면, 이스라엘로 건너갔던 옛 소련지역 유대인들 100만 명 중 10만 명이 러시아로 되돌아갔다. 국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향’은 1990년대 초 옛 소련과 에티오피아로부터의 유입 물결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¹⁹⁾고 전한다.

이스라엘에 모인 유대인들은 역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인들이 역이민을 준비하든 그렇지 않든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서부유럽 그리고 러시아에 정착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진정 세계사에 동참한 것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시니어와 아비브(C. Aviv & D. Shneer)²⁰⁾는 전통적인 시오니즘=디아스포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현실적 디아스포라를 주장하며 시오니즘의 소멸을 이야기 한다.

“이스라엘을 정점에 놓고 국외 거주 유대인을 밑에 배치하는 디아스포라의 전통적 개념을 거부한다…… 유대인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거나 언제든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종교적·민족적 신념은 잘못됐다. 우리는 망명자가 아니다.”

18) 그루지아 출신의 스탈린은 반대로 국가사회주의를 원했다.

19) 한겨레신문 2007월 1월 14일자.

20) C. Aviv & D. Shneer, *New Jews: The End of the Jewish Diaspor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For many contemporary Jews, Israel no longer serves as the Promised Land, the center of the Jewish universe and the place of final destination... Jews have come to the end of their diaspora; wandering no more, today's Jews are settled.”

이들은 귀향을 거부한다. 단지 문화적 시오니즘의 센터인 팔레스타인만을 그릴 뿐 타향이 곧 고향이 되어 버린다. 고향을 타향과 동일시하는 이들의 주장은 어디서 오는가? 이들은 어찌해서 그리움을 소멸시키고 고향의 현실과 고향의 상상을 실제로 동일시하는가? 이제 하층 유태인들도 다들 먹고 살만 해져서 더 큰 시장을 향해 나가는 것인가. 현실적 디아스포라에서는 만인과 만인이 투쟁한다. 오로지 무한경쟁과 단타성의 이익추구가 목적이 된다. 고향이 없으면 보호할 것이 없다. 타향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지 무한한 이익만 얻어내면 쓸모가 끝나는 공간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본의 디아스포라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본의 현대적 흐름과 유태인의 현실적 디아스포라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철저하게 근대화되어 버린 자본의 디아스포라의 결과이자 그 원인이다. 신자유주의는 유태인 디아스포라의 삶의 방식에 정확하게 걸맞다.

19세기 이래로 몰락하는 기독교 공동체와 20세기의 몰락하는 민족주의 그리고 산업자본에 의해 몰락한 사회공동체 이념이 실용주의적 개인을 만들었다²¹⁾.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개인자본이 20세기 직, 간접투자의 산업적 개념을 밀어내고 20세기 말 투기적 투자의 개념(단기 수익추구, 고배당 추구, 유상감자를 통한 투자 조기 회수, 적대적 인수합병, 기업 매각, 경영간섭)으로 변형된 이데올로기가 바로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산업자본은 정착된 경제이고 금융자본은 언제나 떠남을 전제로 하는 경제라면 투기 자본(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와 헤지펀드Hedge Fund)은 애초부터 떠돌아다니는 노마드의 경제인 것이다.

21) J. Leca, “La vogue du liberalism,” in *Magazine littéraire* n. 239-240, 3/1987, Paris, p. 38.

4. 사상적 디아스포라: 신자유주의

구 공산주의 계획경제는 세계시장을 거부해 왔다. 체제 내부에서 혹은 동일한 체제를 지닌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환경제 시스템으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속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을 보여 왔다. 아시아의 가부장주의는 자유교환 체제내에서 자국 시장을 함부로 놓아두지 않았다.

이 두 체제가 1990년대 함께 무너져 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급작스런 역사를 쉽게 이해하려면, 결과를 먼저보고 원인을 따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유추, 해석을 요한다. 먼저, 러시아와 CIS의 현재를 보면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집중된 경제적 부를 얻기 위해 구 소련의 정치적 체제를 무너뜨린 것인가? 그렇다면 구 소련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부를 획득한 이들은 누구인가? 누구도 이 유추에 확신에 찬 해석을 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나와 버렸다. 주인공은 정부 각료와 그들의 친인척 그리고 권력의 주변세력이다.

1993년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자본이 말하는“공정한 경쟁 조건”이란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없다. 즉, 주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도 정상인과 같이 100m 달리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정한 경쟁 조건에 대한 준비가 없던 태국이 투기자본에 의해 망가지기 시작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연달아 망가졌다. 이들 국가의 모기업의 역할을 한 일본 대장성이 300억\$의 아시아 통화 기금을 제안 했을 때, 워싱턴은 이를 막았다. 대신 1997년 IMF를 등장시켰다. 그 결과, 누가 이익을 얻었는 지 이미 다들 알고 있다. IMF는“동아시아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어떠한 서구은행도 초토화된 나라들에게 대출해 준 돈을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²²⁾였다면 동아시아의 위기의 주인공은 서구은행과 대투자가들이다.

서구은행과 대투자가들의 자본 혹은 부의 유동적인 흐름을 보장하는 이념

22) C. Johnson, 이원태/김상우 역, 『블로우 백』, 서울: 삼인, 2003.

이 신자유주의라면 그 주인공은 결국 이들과 같이 세계 각 국가의 정치권력과 자본을 움직이는 인물과 기관인 것이다. 모두 개인적 사자본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세계화와 민주화 혹은 공정성을 말하고 안으로는 밀실의 정치 권력화 하여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일반 경향을 보여준다. 이들이 갑작스런 정책을 시행할 때, 많은 이들은 어안이 병병할 때가 있다. 석유업 계열의 부시정부가 무슨 이유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했는지 다들 어안이 병병하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갈 뿐이다. 건설업 계열의 이명박 정부도 정확하게 미국정부 스타일로 정치를 한다.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 국정계획을 세우고 시장논리로 이를 변명한다. 대운하를 포함한 대다수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이 정부가 왜 저러는 지 어안이 병병하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며 지켜 볼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원리만 알면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을 말이다. 개인과 기관의 사적이익을 얻어내기 위하여 보편성 혹은 시대의 흐름을 위장하는 것일 뿐이다.

개인과 기관으로서 밀실정치화 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성공은 결국 모든 보호장치의 철폐라는 세계인 디아스포라의 이데올로기와 관계한다. 물품, 언어, 정보, 사람, 자본 모두 국가와 사회의 보호 장치를 풀어 헤쳐야만 한다. 그래야만 개인자본이 국가자본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이다. 물품은 관세를 철폐하여야 유통의 속도를 부여받는다. 언어는 유일언어(영어)로 일원화해야 국가 간 정보의 장벽을 철폐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보커뮤니케이션 방법이며, 이는 진정 신자유주의의 간절한 욕망이 아니라면 탄생할 수 없었던 기술이다. 고용문제가 없다면, 비자는 철폐되어야 한다. 국제 결혼도 마찬가지로 옹호된다. 자본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의 화폐와 투자조건을 철폐하여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투자가 자유로워야 한다. 이 모든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분명 1980년 이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현실과 동일하다.

신자유주의라는 디아스포라의 이념은 오랫동안 준비 된 것이었다. 미국의 시카고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센터였다. 두 사람의 유대인, 하이에크(August Friedrich von Hayek)와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 주도자²³⁾였다. 소수의견을 제시했던 이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시카고 학파를 만들고 정부의 선택을 받아 신자유주의 정부의 싱크탱크로 돌변한 것은 미국

과 영국의 유태계 보수재단의 연구비 지원의 결과다²⁴⁾. 1960년부터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재단은 이들 그룹에게 연간 17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뉴딜정책을 반대했던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AEI) 또한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연구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했다. 연구비는 학술대회와 연구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을 위한 것이었다. 이 기관은 포드재단으로부터 3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받아 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은 헤리티지 재단이었다. 이 재단은 신자유주의 연구에 25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소득환급제를 거부한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와 맨하탄 정책연구소(Manhattan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또한 상당한 정치적 재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구상해왔다. 영국의 경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런던 아담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 of London) 또한 “세계자본과 자산의 사유화”²⁵⁾를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의 가치를 내걸었다.

올린 재단(Olin Foundation)은 “사기업이 이끄는 정치, 경제, 문화제도의 강화”를 슬로건으로 1988년에만 5500만 달러를 연구비로 제공했다. 이들 연구비는 하버드와 예일, 스탠포드와 시카고 대학에 뿌려져 연구와 학술지 창간에 쓰였다. 특히, 재단의 지원을 받는 잡지, 『국가이익』(The National Interest)지의 편집장 크리스톨(Irving Kristol)은 1,4백만 달러를 헌팅턴(Samuel Huntington)에게 제공하여 신자유주의 이념을 검토, 광고하도록 유도했다. 역사의 종언 이후 신자유주의의 도래를 말하는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또한 그런 인물이었다. 이는 마치, 서부유럽 대자본가의 지원을 받았던 러시아의 헤르첸(Alexander Herzen)이 1850년대 중반 제정 러시아 내부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진보사상²⁶⁾을 퍼뜨릴 때를 떠 올린다. 50년

23) M.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Chicago University Press, 1962.

24) A. Smith, *The Ideas Brokers:Think-Tank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s*, New York:The Free Press, 1991.

25) B. Martin, *In the Public Interest?*, London:Zed Books, 1993, p. 49.

26) 헤르첸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러시아를 오가며 서구진보 사상과 현황을 러시아의 유태인들에게 실어 날랐다. 그는 이념을 창시하거나 발전시킨 자가 아니라 단지

후 러시아 혁명이 결국 발발하고 말았다.

사람들에게 잠깐 눈길을 끌었던 1940년대 시카고의 신자유주의 이념이 1980~90년 이후 헤게모니를 얻어 낼 때까지 이를 이끌었던 것은 결국 돈이었다²⁷⁾. 돈이 정권을 만들고 갱신하며 유지하며 파멸시킨다. 대학과 미디어

서구 유대인의 이념을 편집하는 잡지기자였다. A. Herzen, *Lettre de France et L'Italie*, Geneva: Slatkine Reprints, 1979(1850)/*De l'autre rive*, Paris-Geneva: Collection Ressources, 1870.

- 27) 클린턴 행정부 유대인 핵심인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Madeleine Albright - Secretary of State/Robert Rubin - Secretary of Treasury/William Cohen - Secretary of Defense/Dan Glickman - Secretary of Agriculture/George Tenet - CIA Chief/Samuel Berger - Head National Security Council/Evelyn Lieberman - Deputy Chief of Staff/Stuart Eizenstat - Under Secretary of State/Charlene Barshefsky - U.S. Trade Representative/Susan Thomases - Aide to First Lady/Joel Klein - Assistant Attorney General/Gene Sperling - National Economic Council/Ira Magaziner - National Health Care /Peter Tarnoff - Deputy Secretary of State/Alice Rivlin - Economic Advisory/Janet Yellen - Chairwoman, National Economic Council/Rahm Emanuel - Policy Advisor/Doug Sosnik - Counsel to President/Jim Steinberg - Deputy to National Security Chief/Jay Footlik - Special Liason to the Jewish Community (no other ethnic group has a special liason)/Robert Nash - Personal Chief/Jane Sherburne - President's Lawyer/Mark Penn - Asia Expert to NEC/Sandy Kristoff - Health Care Chief/Robert Boorstin - Communications Aide/Keith Boykin - Communications Aide/Jeff Eller - Special Assistant to Clinton/Tom Epstein - Health Care Adviser/Judith Feder - National Security Council/Richard Feinberg - Assistant Secretary Veterans/Hershel Gober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teve Kessler - White House Counsel/Ron Klein - Assistant Secretary Education/Madeleine Kunin - Communications Aide/David Kusnet - Dept. AIDS Program/Margaret Hamburg - Dir. Press Conferences/Many Grunwald - Liason to Jewish Leaders/Karen Adler - Dir. State Dept. Policy/Samuel Lewis - National Security Council/Stanley Ross - National Security Council/Dan Schifter - Director Peace Corps/Eli Segal - Deputy Chief of Staff/Alan Greenspan - Chairman of Federal Reserve Bank/Robert Weiner - Drug Policy Coordinator/Jack Lew - Deputy Director Management and Budget/James P. Rubin - Under Secretary of State/David Lipton - Under Secretary of The Treasury/Lanny P. Breuer - Special Counsel to The President /Richard Holbrooke - Special Representative to NATO/Kenneth

Apfel - Chief of Social Security/Joel Klein - Deputy White House Counsel/Sidney Blumenthal - Special Advisor to First Lady/David Kessler - Chief of Food & Drug Administration/Seth Waxman - Acting Solicitor General/Mark Penn - Presidential Pollster/Dennis Ross - Special Middle East Representative/Howard Shapiro - General Counsel for the FBI/Lanny Davis - White House Special Counsel/Sally Katzen - Secretary of Management and Budget/Kathleen Koch - Heads FBI Equal Opportunity Office/John Podesta - Deputy Chief of Staff/Alan Blinder - Vice Chairman of Federal Reserve/Janet Yellen - Head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Ron Klain - Chief of Staff for Al Gore/Poland: Ambassador Daniel Fried.

부시 행정부의 핵심 유대인들을 보면, Richard Perle - Chairman of the Pentagon's Defense Policy Board/Paul Wolfowitz - Deputy Defense Secretary/Douglas Feith - Under Secretary of Defense and Policy Advisor at the Pentagon/Edward Luttwak - Pentagon National Security Study Group/Michael Chertoff - Chief of Homeland Security/Henry Kissinger - National Security Council Advisor/John Negroponte -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Dov Zakheim - Under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 and Chief Financial Officer (CFO)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Kenneth Adelman - Pentagon Advisor/I. Lewis Libby - Dick Cheney's Chief of Staff/Robert Satloff - National Security Council Advisor/Elliott Abrams - National Security Council Advisor/Marc Grossman -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Richard Haass - Director of Policy Planning at the State Department/Robert Zoellick - U.S. Trade Representative/Ari Fleischer - Official White House Spokesman/James Schlesinger - Pentagon Advisor/David Frum - White House speechwriter/Joshua Bolten - White House Deputy Chief of Staff/David Wurmser - Special Assistant to John Bolton, the under-secretary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Lincoln Bloomfield -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Military Affairs/Jay Lefkowitz - 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irector of the Domestic Policy Council/Ken Melman - White House Political Director/Brad Blakeman - White House Director of Scheduling/Eliot Cohen - Member of the Pentagon's Defense Policy Board/Mel Sembler - President of the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Steve Goldsmith - Senior Advisor to the President/Adam Goldman - White House's Special Liaison to the Jewish Community/Joseph Gildenhorn - Bush Campaign's Special Liaison to the Jewish Community/Christopher Gersten -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Mark Weinberger - Assistant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for Public Affairs/Samuel Bodman - Deputy Secretary of

는 공범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좌파인 아도르노와 우파인 라자스펠트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대민 설득 라디오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할 때를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진정성의 이념에 무지한가 알 수 있다²⁸⁾. 이들에게 이념이란 유대역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도구이거나 그 결과에 대한 핑계이다.

오늘날 돈, 대학, 미디어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디아스포라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교육, 선전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는 19세기 말 공산혁명이 도달하려 했던 세계화를 자본을 통해 2000년에 와서야 비로소 달성한다. 이것이 후쿠야마가 말했던 역사의 종언이다. 신자유주의의 보편성 혹은 타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이유로 싸구려 인성을 가진 것이다. 이에 달라붙는 한국교수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자본의 디아스포라에 경제가 종속되면 정치가 그리 된다. 미디어가 그리되면 국민이 그리 된다. 마지막으로 지식인이 그리된다. 모두가 변화를 싫어하고 제 이익만 챙기게 된다. 지난 20년을 보면, 한국교수들은 오히려 자본의 성격이 어떻든 자본이 자신을 써 먹고 버려주길 바라는 행태를 줄 곳 보여주었다. 연구비 지원의 방향성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 연구지원의 독재자 학술진흥재단 또한 철학이 없다. 이런 방식이라면, 앞으로 인문사회학계에 ‘세계적인’ 한국교수가 탄생한다면 그는 국제 투기자본의 꼭두각시일 가능성이 있다.

5. 결론: 자본 디아스포라의 新 자유주의

2008년, 세계인들은 교육과 미디어에 의한 선전과 투기자본의 실제행동이

Commerce/Bonnie Cohen -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Management/Ruth Davis - Director of Foreign Service Institute/Daniel Kurtzer - Ambassador to Israel/Cliff Sobel - Ambassador to the Netherlands/Stuart Bernstein - Ambassador to Denmark/Nancy Brinker - Ambassador to Hungary/Frank Lavin - Ambassador to Singapore/Ron Weiser - Ambassador to Slovakia/Mel Sembler - Ambassador to Italy/Martin Silverstein - Ambassador to Uruguay
28) 신항식, 『시각영상 커뮤니케이션』, 파주: 나남출판, 2005.

만들어 놓은 비참한 결과를 바라보며 신자유주의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현실적 디아스포라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한국도 그렇다. 오히려 타 자본주의 국가들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거기에 익숙해진 만큼 더욱 큰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년, 한국은 공화정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정책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채 맛보기도 전에 한국국민은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재빨리 정권을 넘겨주었다. 가진 자들만의 철학인 신자유주의의 미디어는 가지지 못한 국민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눈까지 설득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신자유주의는 교묘하게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경제를 파고들어 하이에크의 ‘시장의 자유’를 ‘경제 살리기’로 거짓 위장했으며, 해마다 겪는 버블 경제를 활황으로 착각하게 했다. 더 나아가 가진 자의 자본이 밑으로 내려 올 것이라는 순진한 ‘자비의 철학’ 혹은 ‘기부의 행위’와 가지지 못한 자의 ‘헛된 재물욕’을 접합하였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는 신자유주의의 원리를 새까맣게 몰랐다.

첫째, 시장의 자유란 실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진 자만의 새로운 자유라는 사실(자본출자의 자유, 기업흡수 통합의 자유, 독과점의 자유)을 몰랐고, 경제 살리기관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조건하에서만 살려지는 경제(공공 이익보다 사적이익 추구, 작은 정부에 의한 사적자본과 공적 정치의 일원화)라는 것을 몰랐다. 무한의 자유가 허락되지만 가진 것이 있는 자에게만 통하는 자유이기에 예전의 기회의 자유와는 다른, 남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새로운 자유인 것이다.

둘째, 버블경제란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이 특정한 투자처(부동산, 주가, 그림 등)에 지나치게 몰려 원가대비 부가가치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크게 올라 있을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경제란 항상 안정성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폭락하는 것이다. 활황 경제란 안정된 분산투자에 근거한 경제라서 폭락은 없다. 버블은 거품이 아니라 하늘로 높이 던져 올린 돌일 뿐이다. 경제의 중력은 이 돌을 다시 떨어뜨리게 되어 있다. 문제는 하늘로 던져 올린 돌이 던지지 않은 사람 머리에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지지 못한 자이다. 뉴타운에 의해 쫓겨나는 이들은 정착민이며 뉴타운

에 의해 이익을 보는 자는 자본의 강남 디아스포라다. 이것을 뉴타운 정착민들이 몰랐던 것이다.

셋째, 가진 자의 본질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몰랐다.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들이 99% 중 10% 정도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떼어 주는 줄 알았다. 이것이 기부이며 복지이다. 기부는 사적 분배이고 복지는 공적 분배이다. 그러나 사적 분배는 언제나 되돌아 올 이익을 추구하며 벌어진다는 점에서 공적 분배와 다르다. 사적 분배는 일회적이며, 미래를 기약할 수 없으며, 시혜적이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 그러나 공적분배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미래를 기약할 수 있으며, 당연한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리지 않는다. 2008년 한국의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전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한국의 가진 자는 사적 분배마저 하지 않는 뿌리 깊은 천민이란 것을 몰랐다. 기업광고를 위해 종교재단이나 구휼재단에 푼돈이나 털어 넣는 것이 한국의 가진 자이며, 나머지 여유 자금은 서민의 1% 자산마저 빼앗으려는 메커니즘 속에 투자하는 것이다.

경제는 남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며, 버블 경제는 위장과 헛된 꿈의 경제이며, 자비란 시장에 없는 물품이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아는 통로를 주류 미디어에 의해 차단당한 채, 신자유주의에 의해 설득당한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에게 구걸을 하거나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둘 중의 하나를 원했다. 가지지 못한 한국민의 거지 근성 혹은 노예의 이데올로기를 신자유주의는 성공적으로 이용해 먹은 것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부는 취약농가 지원비, 학자금 대출지원비, 장애인 차량 세금 및 무상보육 지원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비를 정권 시작과 더불어 삭감하였다. 초등학교의 전교 석차가 인터넷을 통해 보여진다.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배려가 사라져도 아무도 무어라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고용제한도 4년으로 늘리려 한다. 공기업은 민영화되고 있다. 즉 공공자본이 감내해 왔던 적자를 개인자본이 흑자로 바꾸려 한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흑자를 바꾸려 하는 지 가지지 않은 자들은 모른다. 바로 가지지 않은 자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적자를 메우고 흑자를 올리는 것이다. 금융통합법을 통해 자본출자의 한계가 사라진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미국의 소

고기를 포함해서 한미 FTA는 수많은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강요되고 있다. 미국의 투기자본은 FTA가 없으면 투자하기 어렵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칠레의 FTA는 투기자본이 자국의 고용과 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종속의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 준다. 전 세계 대학교수들의 논문과 에세이, 주류 미디어는 계속 신자유주의의 거짓을 선전하다가 미국금융위기라는 불벼락을 맞았다. 한국의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대학 지식인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는 한국의 조무래기 투기자본은 계속 “서민, 너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헛된 재물욕을 부추기고 있다. 1960년 이래 하이에크와 프리드만, 헌팅턴과 후쿠야마가 그리했듯이, 조지 소로스, 론스타, LTCM, 칼 아이칸, 뉴 브릿지 캐피탈 각종 사모 및 헤지 펀드들이 계속 그래왔듯이 말이다.

자본의 디아스포라 혹은 자본의 노마드. 이 신자유주의의 링에는 체급이 없다. 이를 디아스포라는 경쟁의 불평등한 조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 모두 똑같은 디아스포라의 조건에서 싸워야 한다. 우리 모두는 무체급의 K-1 링 위에 올라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디아스포라에서는 누구도 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모두가 모두의 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공간과 마인드는 아직도 살아 있을 것이다. 이미 떠나버렸다고 해서 고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디아스포라는 언제나 귀향과 방문을 기대한다. 현대자본의 디아스포라는 다시 농촌과 산업시설과 기술의 발전으로 귀향할 수 있으며 최소한 방문만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 성실히 일하는 농촌과 산업 기술의 현장 일꾼들에게 귀향하는 자본일 때, 비로소 고향을 찾는 자본주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자본의 디아스포라와 유대인의 상관관계를 예견하는 헨리 포드의 말²⁹⁾을 끝으로 결론을 맺는다.

“요즘 미국인은 전 세계에 타락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간들로 알려져 있다. 왜인가? 그것은 유대인들의 금권이 이 나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천재성은 그들은 땅 대신 사람을 벗겨먹고 산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처럼 땅을 일구거나 천연자원으로 상품을 생산

29)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6, 1926.

하여 삶을 꾸려가는 대신, 그런 일을 하는 다른 민족들의 피를 빨아서 살아 간다는 것이다. 들판과 공장에서 땀을 흘리는 일은 다른 민족들에게 맡겨 둔 채 유대인은 이들이 거둔 결실을 착취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기생적인 천재성이다”

❖ 참고 문헌

- 전광식, 『고향』, 문학과지성사, 1999.
- C. Aviv & D. Shneer, *New Jews: The End of the Jewish Diaspor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 A. Caille, “Critique de Hayek,” in *MAUSS* n. 10, Paris, 1984.
- S. Courtois(col), *Le livre noir du communisme*, Paris:Robert Laffont, 1997.
- C. Degler, *At Odds: Women and the Family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Pres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J. Demos, *Past, Present, and Person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G. Friedmann, *Fin du peuple juif?*, Paris:Gallimard, 1965.
- M.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Chicago University Press, 1962.
- C. Johnson, 이원태/김상우 역, 『블로우 백』, 서울:삼인, 2003.
- A. Ha'am, *The Jewish State and Jewish Problem*, trans. from the Hebrew by Leon Simon c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Essential Texts of Zionism*, 1912.
- J. Leca, “La vogue du liberalism,” in *Magazine littéraire* n. 239-240, 3/1987, Paris.
- R. Neher-Bernheim, *Histoire juive de la Renaissance a nos jours*. vol. 1, 2, Paris:Ed. Durlacher, 1966.
- H. C. Triandis, “Individualism and social psychological theory.” In C. Kagitcibasi(Ed.). *Growth and progres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78~83). Lisse: Swets & Zeithlinger, 1987.
- “Les differente vagues d'Immigration juive,” in *Revue francaise de sociologie*, Paris, 7-9/1965.

❖ ABSTRACT

Neo-Liberalism or Capitalism in Diaspora Today

Shin, Hangsik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relation between the Jewish people and their capital flow today. Follow this purpose, I discussed on the double concept of “diaspora capital” and “diaspora people” which takes a universality of the world situation. The hometown concept of the Jewish people is changed and emphasized on the cultural value to the capital one today. What I want to comprehend through this investigation is point out limitations of traditional logic of history and stress on the result that the Jewish people have gave down for world history.

The Jewish people made the modern man to ignore the existence of human solidarity of community by substituting a need of capital in their mind. Having refused to get some mental integration with other people, the Jewish rejected this solidarity but got their own interest by spreading a capitalism of capital, financial system of the society. This typical jewish problem dominated the capitalism society and made it ti fit to their materialist mind all over the world from 19's century.

This kind of inclination to the capital diaspora, named neo-liberalism, has acculturated another country to vacant the industrial continuity, social mind and the capitalism itself in all over the world of each regions. I called it the catastrophe of industrial and capital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d from 300 years.

Key Words

Diaspora, New Liberalism, Capitalism, Globalization, Ideology

논문접수일: 2008. 10. 27.

심사완료일: 2008. 11. 26.

게재확정일: 2008. 12. 10.